

### 제5회 전남도 목공예 콘테스트 시상식 개최



전남도가 국산목재 이용 촉진과 목제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제5회 전라남도 목공예 제품 콘테스트 시상식이 14일 순천만 가든마켓 실내정원에서 열렸다. (사진)

71점의 목공예품과 생활소품이 접수된 이번 콘테스트에서는 장흥 김창근 씨가 느티나무와 산벚나무를 활용해 제작한 목재의자 '스물'로 대상을 차지했다. 목공예 분야 최우수상은 장흥 이경식 씨의 빛나무로 만든 '가을을 담다', 우수상은 순천 조유진 씨의 '호시우행', 강진 송향수 씨의 '서각'이 선정됐다.

생활·체험소품 분야 최우수상은 장흥 안재준 씨의 '탄소중립 햄버거 블록', 우수상은 목포 강정익 씨의 '유달산 도깨비 메모꽂이', 완도수목원 조규욱 씨의 '조명'이 선정됐다.

수상작 전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순천만 가든마켓 실내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순천·광양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예작품 우수작품 특별전시도 함께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id@kwangju.co.kr

### 동강대 군사학과, 육군3사관학교 9명 최종 합격



동강대학교 군사학과가 올해도 전국 최고의 군사학과 명성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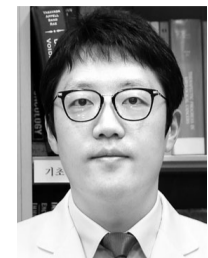
동강대 군사학과(학과장 조동권)는 올 5월부터 진행된 '2024년도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신입생 선발시험'에서 9명이 최종 합격했다. (사진)

합격자는 김상연·소현석·주성민·최아름·황선중(이상 1년), 강성찬·정우택(이상 2년) 등 재학생 7명과 졸업생 김희준·고영민 등 9명이다.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는 장교과정으로 국가지 공무원 7급에 해당된다.

동강대 군사학과는 2022년, 23년도 선발시험에서 각각 7명, 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이번 선발시험에는 학과 창설 이래 가장 많은 9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와 함께 내년 졸업예정자인 2학년 전원이 ▲육군 장교 2명 ▲육군 부사관 28명으로 취업이 확정됐다. 1학년 재학생도 육군 장교 5명, 육군 부사관 24명 등 전원 취업돼 다시 한 번 전국 최고의 직업군인 요람임을 입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정호석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등 비뇨학과 의료진 학술대회 잇단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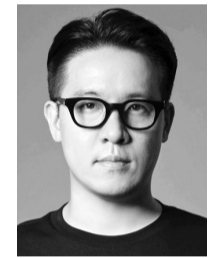
전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의료진이 대한비뇨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잇단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호석(사진) 화순전남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와 김태희 전공의는 '마우스 폐경모델에서 레티놀산 담지 나노미셀이 질 점막상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기초부분 우수논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논문은 동물모델에서 개발된 나노미셀을 질 내에 도포해 질 점막상피의 수분 및 글리세롤 분비를 조절하는 제3형 아쿠아포린의 발현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질건조증 치료제의 기반기술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 유성현 전남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와 임의찬 전공의는 '국내 급성 단순 방광염의 병원균 분포와 항생제 내성에 대한 감시 시스템의 초기 결과 보고'를 주제로 임상부분 우수초록상을 수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김선형 전남대 건축디자인교수 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등 수상



전남대학교김선형(사진)건축디자인학과 교수가 최근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올 한 해에만 4개의 권위있는 건축상을 수상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대 김선형 교수(건축디자인학과)는 지난달 30일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수상작 '프레스트 에지'는 풍요로운 공간감을 담으면서도 재료가 가진 엄정한 건축질서를 구축한데다 가벼운 목재로 이루어진 저탄소 건축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건축분야를 성장하게 했다는 평을 받았다. 앞서 김 교수는 한국건축가협회 건축상과 대한민국건축건축대전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구조디자인상(한국목조건축협회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지난 2년간 치열하게 몰두했던 프로젝트가 과반한 결과들로 이어져 영광스럽다"며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영산강유역환경청, 홍수 취약지구 도보 점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5일 서구청과 양동복개상가를 방문해 홍수취약지구 도보 점검을 실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 조선대 K-바이오헬스센터, 동구 저소득층에 물품 기부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센터장 이준식·이하 센터)는 15일 광주시 동구청에 저소득층을 위한 850만 원 상당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사진)

기부물품은 센터와 센터 참여기업(썬바이오텍스, 이노비오)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센터는 무릎담요 200개, 썬바이오텍스 제품은 손세정제·가글·치약 각각 200개, 힐링스는 치과전용 잇솔 250개를 전달했다.

이준식 센터장은 "참여기업의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루고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후원해 사회복지 도모와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0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줄은아침
0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우아한 제국(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 좋아 스페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00 고려 거란 전쟁(재)	15 다이노맨2 30 12 MBC 뉴스 55 2023 아시아 프라야구 챔피언십 (대한민국·호주)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5 꿀잼 영화가 좋다 베스트(재) 35 스튜디오 K 스페셜(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닥터 365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5 우아한 제국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팔도밥상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3	00 브레드와 월크의 세계여행 2 15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5 도시의 기록(재) 50 만담다구 호수인	00 KBS 뉴스타임 15 반지의 비밀일기 2(재) 30 TV 유치원	25 이 맛에 산다(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7학년 주식회사 시즌2(재) 40 도시락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슈퍼트론 15 다이노 파워즈 2 30 농친 연애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7개월의 기록(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보방송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제국	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0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홍김동전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45 서치:미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국민사형투표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55 골든 걸스 스페셜(재)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0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40 문화콘서트 난장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 스페셜
12	00 KBS 중계식	05 2023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50 네모세모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7:40 특별 생방송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5부 종합 분석과 대입 준비 전략
05:30 클래스 e	12:00 EBS 뉴스 12	18:40 EBS 뉴스
05:50 한국기행	12:10 명의	19:00 한국의 둘레길
06:10 세계테마기행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20 고향민국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45 직업탐구 별일입니다3	19:50 인간과 바다(재)
07:15 시뮬	14:15 특별 생방송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3부 수학 브리핑	20:40 세계테마기행
07:30 엄마 까투리	14:45 직업탐구 별일입니다3	<꿈꾸던 가을로 캐나다 동부 -다시 올 이유, 단풍곡>
07:45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5:15 EBS 평생학교 2교시	21:30 한국기행
08:00 특별 생방송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1부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꽃보다 단풍 4부 단풍들면 온네>
09:05 그린조개 구조대(재)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21:55 귀하신 몸(재)
09:20 다크영화 길 위의 인생	16:40 덩동명 유치원(재)	22:45 교육대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클래스 UP! 교실을 깨워라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페퍼 피그	23: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30 한국기행(재)	17:10 특별 생방송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4부 영어 브리핑	
10:50 특별 생방송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2부 국어 브리핑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6일(음 10월 4일 戊寅)

<p>36년생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48년생 파도가 높으니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60년생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라. 72년생 입체적인 관점과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84년생 혼자 초처럼이 제일 숙련할 것이다. 96년생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2, 60</p>	<p>42년생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54년생 얼마나 깊어 다뤄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66년생 가볍게 여기다가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다. 78년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회를 놓치지 마라. 90년생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조금씩 진일보하고 있느니라. 02년생 수효보다 영향력에 비중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26, 86</p>
<p>37년생 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 법이다. 49년생 기회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61년생 전체를 아우를 줄 아는 포용적 국량이 필요하다. 73년생 망심하고 있다면 어려운 경우를 말할 수도 있다. 85년생 비웃었다면 적당한 선에서 생애하는 것도 좋다. 97년생 하나의 조처로 여러 가지들을 이루리라. 행운의 숫자 : 14, 75</p>	<p>43년생 기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법이다. 55년생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일이 원하는 대로 이뤄질 수 있다. 67년생 협조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실속을 채우려는 이가 보인다. 79년생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면 적폐가 해소되면서 불평함이 사라지리라. 91년생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가야 한다. 03년생 수월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2, 89</p>
<p>38년생 의외의 경로로 새어 나가지 않을까 두렵다. 50년생 남의 일에 나서면 무조건 손해이다. 62년생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거나 다른 재능이 들어올 수 있다. 74년생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면 적폐가 해소되면서 불평함이 사라지리라. 86년생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지 마라. 98년생 객관적인 사실로써 대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16, 93</p>	<p>44년생 구체적이지 않으면 끈기 부족에 불과하다. 56년생 오늘의 선택을 잘한다면 뒷일이 수월해지리라. 68년생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면서 활기차게 변신하는 운로이다. 80년생 가능성이 없다면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을 나을 것이다. 92년생 기뻐만 기운이 휘몰아치니 이번이 예상된다. 04년생 꼭 만나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34, 91</p>
<p>39년생 오랜 인연의 끈으로 맺어질 사람을 만나리라. 51년생 전체적으로 힘든 국량이 번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63년생 경청하되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것이 편하다. 75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상당한 변수를 안고 있다. 87년생 기회가 사람을 버리는 것보다 사람이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 99년생 복잡한 관계들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8, 78</p>	<p>45년생 속임수에 넘어가면 사고 나게 되어 있다. 57년생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양태이다. 69년생 고정 관념의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아니 된다. 81년생 함께하는 이와 호흡이 중요한 때이다. 93년생 기뻐만 지켜보고 있노라면 진면목을 목도하게 되리라. 05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풍성한 성과를 거두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46, 92</p>
<p>40년생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순조로우리라. 52년생 분명하다면 확실히 믿어붙어야 한다. 64년생 표면상으로 힘들어 보일지 모르나 중구적으로는 성사되리라. 76년생 요긴한 것이니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느니라. 88년생 행운을 전해주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리라. 00년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09, 62</p>	<p>34년생 억지로는 아니 되는 법이니 무리 없는 양상으로 이끌 필요가 있느니라. 46년생 기가 막혀서 아예 말도 나오지 않는 판도가 펼쳐질 것이다. 58년생 뜻밖의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 두루 살펴보라. 70년생 경험을 살린다면 무리하게 타개할 수 있다. 82년생 기조를 이루는 것은 유지해야 하느니라. 94년생 공허하여 그 어떤 실속도 없다. 행운의 숫자 : 22, 50</p>
<p>41년생 포용력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53년생 막연하다면 절제할 수도 있어야겠다. 65년생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시끄러워진다. 77년생 눈앞에 놓여 있더라도 직접적인 노력을 기울여 성취하느니라. 89년생 현재에 국한시키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갖자. 01년생 야 무리 살펴봐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82</p>	<p>35년생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급변하리라. 47년생 주어진 여건에 불만을 갖지 말고 이리저리 공리해 보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59년생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취하자. 71년생 변화의 양상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이다. 83년생 지금이라도 반전시키는 것이 백번 낫다. 95년생 승화된다면 순기능을 하리라. 행운의 숫자 : 43, 80</p>